

1장

성경(THE BIBLE)

I. 시작하는 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성한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꽤 합당한 말입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66권의 개별 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들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나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구약이라 불리며 39권으로 되어있고, 둘째 부분은 신약이라 불리며 27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의 처음을 보면 이 66권 책들의 색인표가 있는데, 각 책의 제목을 나열하고 그 책이 시작하는 쪽 숫자를 표시합니다.

II. 누가 성경을 기록했는가?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곧 역사(history)로서 His(그의)-stroy(이야기)로서 적어도 서른 여섯 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 천 육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들 저자가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조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정이 바로 이 성경을 하나님이 감동하신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지도하여 이 말씀을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이 뜻하는 바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은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할지도 모른다고 매우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은 말씀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감동된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 해의 조사와 연구 끝에, 우리가 얻은 결론은 성경에는 인간의 사적인 해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견해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편 119:89절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라는 말씀과 같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기록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성경 이외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또는 빼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최후 경고가 계시록 22:18-19절에 있습니다.

III.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성경이 비록 66권으로 구성되지만, 놀랍게도 한 가지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고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구속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숨겨있으시고, 신약에서 드러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성에 다시 오실 다음 사건을 계시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 년 동안 지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 백보좌 심판”이라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의 구도를 제시하여 줍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IV. 성경은 어떻게 나뉘는가?

성경은 창조의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의 세상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 죄의 시작, 홍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들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에스더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사 백년 역사를 이야기 합니다. 욥기에서 솔로몬의 아가서는 아름다운 시와 지혜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의 선지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미래적 운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 복음서로 시작하는데, 이 복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아기에 있던 기독교의 역사를 알려주는데, 교회의 시작과 사도 바울의 대 회심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실고 있습니다. 로마서로부터 유다서까지는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붙여진 서신들로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와 기독교인 삶의 실제적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앞으로 일어날 하늘과 땅과 지옥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V. 결론의 변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타락한 상태, 구원의 길, 죄인들의 운명과 성도의 행복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교리는 거룩하며, 이 책의 교훈은 힘이 있고, 이 책의 역사는 참되며, 이 책의 결론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읽어 지혜롭게 되며, 이 책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 책의 말씀따라 순종하고 실행함으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당신을 인도하는 빛이며, 당신의 영혼을 지탱하는 양식이고, 당신을 기쁘게 하는 위로입니다. 이 책은 여행자의 안내지도이고, 비행사의 나침반이며, 병사의 병기이고, 그리스도인의 헌장입니다. 이 책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천국이 열리며, 지옥문이 닫힙니다. 그리스도는 이 책의 위대한 주제이시며, 우리가 잘됨이 이 책의 설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천천히 읽고, 자주 읽고, 기도함으로 읽으십시오. 이 책이 당신께 부유의 광산이요, 영광의 낙원이며, 기쁨의 강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최상의 보상을 줄 것이 확실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거부하는 모든 자에게는 저주가 있게 됩니다. 이 책은 책 중의 책입니다. 곧 하나님의 책, 곧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God)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더 위대한 주제는 없습니다.

I. 하나님의 존재

A.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론들

- (1) 이신론(Deism): 신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그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고 체계입니다.
- (2) 무신론(Atheism): 모든 사건이나 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얻을 수 없는 한, 세상에 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3) 회의론(Skepticism): 이들은 신이 있다는 사실에 회의를 품거나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며, 특히 계시의 하나님에 대해 회의를 갖습니다.
- (4) 불가지론(Agnosticism): 이 학파는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고를 갖습니다.
- (5) 범신론(Pantheism): 모든 것이 다 신이고, 신은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체계입니다.
- (6) 삼신론(Tritheism): 삼위일체의 오류로서 세상에는 각기 다른 세 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 (7) 양신론(Dualism):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으며, 두 신은 존재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사고입니다.
- (8) 단일신론(Monotheism): 이것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마귀도 또한 이 사실을 믿는다고 했습니다(약 2:19).

B. 성경의 하나님 존재 증명

성경은 하나님 존재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 분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 전체에 전제되어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처음 구절은 그의 선재(pre-existence)를 기정사실로 하여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창 1:1). 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임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시편 14:1에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을 요1:1-5과 연결할 경우, 천지 창조 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므로, 예수님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됩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고 했습니다(창 1:2). 따라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므로, 자연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C. 성경 밖에서의 하나님 존재 증명에 대한 증거들

- (1) 인류는 항상 어떤 우주적 존재를 믿어왔다는 사실입니다.
- (2) 창조는 필연적으로 창조주를 필요로 하고, 우주는 어떤 원인이 없이 저절로 발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 (3) 우주의 삼라만상 속에서 발견되는 경이로운 모습은 어떤 무한 존재의 설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4)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모든 곳에 선악이 존재해 왔으므로,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누는 도덕률을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률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그 율법의 시여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5) 인간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인 것을 볼 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필연적으로 인간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질서를 가지신 분일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II. 하나님의 본성

A. 하나님은 영이십니다(요 4:24).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지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요 1:14-18; 골1:15; 히1:3).

B. 하나님은 빛이십니다(요일 1:5).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C.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8).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D.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히12: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고 했습니다.

E.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잠 6:16).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 가지니...”라고 했습니다.

F. 하나님은 듣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향해 열려있고, 그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기울어 있습니다.

G.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인 이름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출 3:14; 마 11:25). 인격적인 특성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1) 지식(사 55:9-10), (2) 감정(창 6:6), (3) 의지(수 3:10) 등입니다.

H.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5를 읽으십시오.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짓된 교훈은 분명 이 사실에 모순이 됩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분의 절대자가 있을 뿐입니다.

I.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본체 안에 세 분의 인격, 곧 성부, 성자, 성령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고로 볼 때 하나의 신비이며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사실은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1) 예수의 세례(마 3:16-17), (2) 지상명령(마 28:19), (3) 사도적 축도(고후 13:14). 성부가 하나님으로

불리웠고(롬 1:7), 성자도 하나님으로 지칭되었으며(히 1:8), 성령 역시도 하나님이라 지칭되고 있습니다(행 5:3-4).

III.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정의하기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그의 성질이나 특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머리, 눈, 크기, 그리고 다른 속성들을 말함으로써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해주는 방식 또한 이 방법입니다. 다음의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A.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렘 23:24).

B.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잠 15:3). 그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참 새 한 마리의 죽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마 10:29). 우주가 무한정하고 매우 광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안의 모래알의 영원한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C.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은 그의 능력으로 그 우주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시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마 19:26).

D.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시작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십니다.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과거에 있었거나 또는 앞으로 있을 어떤 존재로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언제까지든지 현재형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출 3:13-14).

F.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고 선함을 사랑하십니다(잠 15:9-26).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들로부터 구별하시며,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사 59:1-2).

H.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요 3:16).

주: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로 존경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하듯 그런 말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통령이나 왕의 접견실에 들어갈 때, 어떤 자세와 말로 그에게 나아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사실 이보다 더 엄격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전에 접견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장

주 예수 그리스도(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 성육신, 공생애 사역과 그 신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I. 그리스도의 신성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주 사용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주 “나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A.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요 6:41)
- B.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요 10:7)
- C. “나는 양의 문이니라.”(요10:7)
- D. “나는 선한 목자이니라.”(요10:11)
- 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요11:25)
- F.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요14:6)
- G.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라.”(요15:1)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히 이 중대한 진리를 다음의 방식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A.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함

- (1) 그의 선재하심. 그리스도는 시작이 없으십니다(요 1:1-3; 17:5).
- (2) 그의 편재하심.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마 28:20).
- (3) 그의 전능하심. 그리스도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계 1:18).
- (4) 그의 전지하심. 그리스도는 무한한 지식을 가지셨습니다(요 21:17).
- (5) 그의 불변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B.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함

- (1)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요 1:3).
- (2) 그리스도는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골 1:17).
- (3)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자신을 일으키셨습니다(요 2:19).

C. 하나님의 호칭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함

- (1) 성부께서 성자를 하나님으로 칭하셨습니다(히 1:8).
- (2)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불렀고, 그도 그들의 경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요 20:28).
- (3) 마귀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막 1:24).
- (4)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요 10:30).

II.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A.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습니다(사 7:14).

B. 역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그 출생이 우리와 전혀 다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 (1) 그는 성령에 의해 잉태가 되셨습니다(눅 1:35).
- (2) 그는 처녀에게 나셨습니다(마 1:23).
- (3) 그는 육신과(히 10:5), 영혼을 지니신(마 26:38; 눅 23:46) 참 사람이십니다.

C.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까닭은:

- (1)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함임(요 14:9)
- (2)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함임(히 9:26)
- (3)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임(요일 3:8)

특주: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지요,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나신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죄 성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롬 5:12). 그런즉, 그는 사람이시지만 결코 죄는 없으신 사람이십니다. 그의 무죄한 생애와 죽음으로부터 그 몸의 부활은 이 진리를 확정하는 증거입니다.

III. 그리스도의 사역

이 제목 하에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을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의 근본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그 나무의 모양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그곳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광야의 성막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상징으로 충만합니다. 그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양'이시고,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14-15에서는 '구리 뱀'이시며, 시편 23장에서는 '목자'요, 스가랴 13:6-7에는 '해(害)받은 목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났고, 시편 24:9-10에는 '영광의 왕'으로 계시되었습니다.

A. 그리스도의 죽으심

- (1)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심이 아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요 3:14-18).
- (2)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히 10:7).
- (3) 그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필요했습니다(사 53:5).
- (4) 그의 죽으심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필요했습니다(엡 1:7).
- (5) 그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신 죽으심이었습니다(고전 15:3).
- (6)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충족하신 죽으심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하였으니, 곧 무한하신 인성의 죽으심으로 인해 무한한 속죄의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B.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1)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예언을 성취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롬 4:25). 그리고 부활은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중보 사역을 가능케 했습니다.

(2)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눅 24:39). 그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였으니, 곧 못 자국과 창상을 가지신 몸이었습니다(요 20:27). 하지만 그 몸은 변화된 것으로서,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지닌 부활체의 몸이었습니다.

(3) 부활 후에 그리스도는 그의 특별한 제자들에게 적어도 열 번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 명 이상의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예수가 죽음에서 실제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고전 15:6-8).

(4)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대한 진리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시킵니다. 모든 종교들은 예외 없이 다 그들 지도자나 구세주의 무덤을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으신 하나님을 주창하지 않고, 무덤과 죽음에서 승리하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생의 구주’를 모시는 자들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판결할 때 눈으로 본 증인들의 개인적인 견해는 별 가치가 없지만, 500명의 증인들이 객관적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보았다고 증거하는 바는 그 사건의 확실성에 대해 전혀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C. 그리스도의 승천

(1) 그리스도는 그 지상 사역의 마지막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눅 24:51; 행1:9-11). 그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많은 증인들이 그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요 14:2-3). 그는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요 14:2-3).

(2)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그는 순종하심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고(요 17:5),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시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의 첫 번째 장은 관을 쓰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요한의 증언입니다.

IV.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는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A.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실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요 1:18).

B.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대표하셨습니다(히 4:14-16).

C.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오늘날 그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저들을 지배하시며 통치하십니다. 다가올 시대에 그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시20:2-3). 시편 72편은 그의 지상 통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주 예수는 우리 성도들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어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4장

성령(Holy Spirit)

기독교는 성령 곧 거룩한 영을 갖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성령에 관한 교리를 생각할 때에, 먼저 앞에서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이름을 알지 못하며, 단지 성령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만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의 인격적인 이름에 대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있습니다. 이는 그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사역만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요 15:26).

A. 성령의 인격:

성령에 대해 무인칭 대명사로 그것(It)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실제적인 하나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보이는 사람만이 참된 인격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신체의 일부가 아닌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이요 성품입니다. 이 인간 육체는 단지 이 지구상에 있을 동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구(vehicle)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인칭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 신체가 무덤에 남아있을 지라도, 그 영혼은 그 신체를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참 인격은 성령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의 다음과 같은 반응들은 그가 인격체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 (1) 그는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
- (2) 그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피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행 5:9)
- (3) 그는 저항하십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 (4) 그는 훼방도 받으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막 3:29-30)
- (5) 그는 속임의 대상도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행 5:3)

성령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으로 지칭됩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 속에서 신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1) 전능성 -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성령님은 마리아와 예수의 보호자였으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눅 1:35).
- (2) 전지성 - 우리 생애에서 성령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고전 2:10).
- (3) 편재성 -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성령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시 139:7-17). 성령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 (4) 영원하신 영 - 우리의 출생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징과 범례들로 규정되는데, 이는 성령의 신적 사역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 (1) 비둘기 - 요 1:32. 비둘기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실 때에 사랑과 인애의 상징입니다.
- (2) 물 - 사 44:3; 요 7:38-39. 한번 구원을 받은 구원인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 (3) 기름 - 삼상 16:13. 제사장의 귀에 먼저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제사장의 엄지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따라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우리들 삶 속에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 (4) 바람 - 요 3:6. 성령님은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우리의 구원과 일생할의 삶에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 (5) 불 - 행 2:3-4. 불은 정화와 시험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들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 (6) 두루마기 - 삿 6:34(확대역).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 입혔습니다. 여기에서 두루마기는 곧 보호를 말하며,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B. 성령의 사역:

성령은 성경 전체를 통해 매우 능동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그가 관여하신 사역에 대한 일부 목록입니다.

- (1)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행 13:2)
- (2)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
- (3)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 15:26)
- (4) 성령께서 교회를 감독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 20:28)

- (5) 성령께서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 (6) 성령께서 진리를 친히 가르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 (7) 성령께서는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태초에…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 1:1-2)
- (8)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요 3:3, 5-8).
- (9)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 (10)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전 6:11)
- (11)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봉인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 (12)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갈 5:18)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매순간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격적 사역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충만하게 되고 또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생각이나 행동으로 허물과 죄에 빠질 지도 모르나, 요한일서 1:9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기를 위해 즉각적으로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 터이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엄밀히 말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국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그의 삶 중에 죄를 허용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파산이나,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고독이나, 언어적 공박이나, 핍박이나 혹은 여러 종류의 다른 곤란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며, 사단으로 구원으로 향하는 우리 길을 변하여 멸망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19-21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민하게 대처해야 할 죄의 목록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의 원수는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매일의 치열한 전투입니다(엡 6:11-18). 승리는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서로 사귀를 갖고(하나님과 우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게 될 때” 오는 것입니다(요일 1:7). 매일 매시간 짧은 회계장부를 기록하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요긴합니다. 우리 죄의 극각적 고백은 우리 영혼의 원수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계속해서 읽고 암기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승리적 삶을 사는 비밀입니다.

C. 성령의 열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 두 가지 종류의 열매를 산출할 수가 있지만, 오직 한 가지만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소욕에 따라서 그 열매 또한 산출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누가 그 삶을 지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6-17)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거나 우리는 매일 이 세상에 살면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이 세상의 압력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 육체적 욕망을 채우라고 합니다. 현대의 유혹은 광고, 미디어, 잡지, 그리고 수천의 다른 곳에도 널려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요일 5:19). 다시 육체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19-21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저 육체의 열매만을 산출할 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불신자라도 선행을 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갈채를 보낼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업적을 남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들은 아무런 영적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중생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열매가 단수인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열매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열매를 다 맺으시나 혹은 전혀 안 맺으시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부터 육체의 열매로 바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욕은 불가불 그 삶에 바른 열매를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어 당신의 열매를 맺으시길 원하시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의 인도와 통치에 복종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는 결코 아무 것의 주님도 아니실 것입니다(갈 5:22-24).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승리의 자리를 차지하려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리를 얻었고, 그 위치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는 날마다 전투가 있지만, 거기에는 오직 우리의 승리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갈 5:24)고 했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는다 함은 우리 행위로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시는 그 분에 의해 되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성령의 지배에 복종할 때에, 거기에서 나는 매일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멀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니,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엡 4:30)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D.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라고 질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만일 내가 새 자동차를 누구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내게서 선물 받은 그 사람이 단지 그것을 쳐다보기만 한다거나, 어떤 전시장에 집어넣어 두고 사람들로 와서 보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것을 타고 운행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자동차의 목적은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준 목적 또한 그 사람이 그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친구를 태워주거나 아니면 시외로 나가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하는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영적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4-7)고 했습니다. 이 장의 다음 구절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롬 12:4-8).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니까? 세상에 다니고 또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재능)을 보고 질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매 사람마다 독특하여 마치 그의 특별한 자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고전 12:1,4-7)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내가 받은 은사인가”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까? 그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은사를 찾아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주의 일을 실행합시다.

은사 가운데는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전환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환기 책이며, 다른 성경이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 한 그 책에서 은사의 교리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기적과 계시와 방언(외국말)으로 말하게 함으로 그의 권능과 인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의 새 경륜의 소식을 빠르게 확산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강림 때의 기적이었으며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의 갈보리 사건, 한 번의 육체적 부활과 한 번의 승천과 같이 오순절 사건도 단 한번의 단회적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에 알려진 세상의 모든 곳에서 모여 온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들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의 구주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했던 것입니다(행 2:4, 22-24). 오늘날, 방언 은사는 더 이상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세상의 모든 말로 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어를 사용해서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계시의 은사 또한 오늘날 더 이상 활동적일 수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신약 성경의 기록된 계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같은 이유로 끝났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우리와 같은 신약 성경을 갖지 못하던 특별한 시대에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까지 구약성경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10에 도래할 신약성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온전한(헬라어로 정관사 “그”가 포함)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1:25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그”) 율법”이라고 함으로써 그것이 신약성경임을 확정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기록된 형태로 완성이 되어 위에서 언급한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은사들을 필요 없게 하였습니다. 사실 성경보다 더한 계시나 예언이나 다른 첨언들을 갖는 것은 계시록 22:18-19에 기록된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E. 성령의 인침:

성령은 그 스스로 인(印: 도장)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 (1) 소유권의 인침(도장 찍음)입니다(딤후 2:19).
- (2) 신분을 확인하는 인침입니다(엡 1:13-14).
- (3) 안전을 보장하는 인침입니다(엡 1:13-14).
- (4) 신분 전환의 완료를 나타내는 인침입니다. 이 인은 합법적 신분의 인침입니다(렘 32:10).
- (5) 성도의 의를 확정하는 인침입니다(롬 4:11).
- (6)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나타내는 인침입니다. 일반 도장의 인은 늘 왁스에 그 표시가 남지만은 성령의 인침(도장)은 우리 인격과 심비에 남습니다 (고후 1:22). 이것은 “담보”의 인입니다. 담보는 후일에 완전한 보상을 받기 위해 받는 것으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르게 될 완전 보장이요 담보인 것입니다.

F. 성령의 세례:

세례(baptism)라는 단어는 “들어가기 위해 또는 일치시키기 위해 담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여보내는 작동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중생받은 성도들의 교회와 일치된 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순절과 교회 탄생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권능의 부여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작용으로서 구원받은 자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로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5)의 말씀은 오순절에 오실 성령을 지칭함이었는데, 그 말씀대로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실 오순절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하셨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너희 안에” 항상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주를 취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항상 집합적으로 어떤 그룹에 적용되든 것이지 결코 일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구원과 심판의 대조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 둘 가운데 하나를 갖게 됩니다(마 3:11-12; 눅3:16-17).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고 주장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치료의 권능과 기적 행함과 귀신 쫓는 축사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으로 자신들의 체험을 해석하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체험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짐짓 거짓으로 기적적 체험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도 있지만, 거짓 마귀의 영도 있는 것입니다(요일 4:1-6).

현대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선용할 수 있는 열쇠는 보다 탁월한 방식으로 자극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고 한 말씀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은사들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실용하기 위해 우리를 자극하게 하는 추진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내어 놓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인이 요구에 대응할 무슨 증거든지에 쓰임받을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우리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느끼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5장

사람(Man)

사람에 대한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것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창조, 본질,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 대해 말해줍니다. 사람은 창조의 초점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그에게 종속됩니다(창 1:26). 그러나 사람을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조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I. 사람의 기원

사람이 자기 기원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각기 서로 다른 시대마다 서로 다른 이론들이 그 시대의 철학자들에 의해 개진되어 왔습니다. 그중 가장 현대적인 것이 진화론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조상이 가장 하등한 동물이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원시인인들이 생물학적 진화론의 측면에서 현대인과 다르다는 증거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혈통이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통털어 단 한 가지 종류라는 사실은 바로 인간이 결코 진화론적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행 17:26).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는 어떤 동물의 피로도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피와 동물의 피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로부터 새, 동물과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인간 기원의 진리입니다(창 1:24-25).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27)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창 2:7). 그리고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1) 여자와 남자가 동침하므로, (2) 여자의 도움이 없이 하와를, (3) 여자나 남자가 없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4) 그리고 남자의 도움이 없이 여자에 의해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내가 그를 만들었고, 조성하였노라.”(사 43:7)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라고 말할 때, “사람이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적절히 대답하게 됩니다.

II. 인간의 본성

누구든지 임종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된 개체임을 생생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한 순간 살아있던 사람이 이내 다음 순간에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기운은 떠났고, 죽은 몸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3중 존재임을 알려줍니다(살전 5:23). 우리는 영과 혼이 모두 육체와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성경은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식물은 영과 혼이 없는 개체입니다. 동물은 육체와 혼이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육체와 영과 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혼은 죽은 몸으로부터 산 자를 구분하나, 영은 동물로부터 사람을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이고든 우주적인 행사입니다. 가장 원시적 사람에서부터 가장 계몽적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원숭이가 자기 바나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양심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의 코코넛을 훔쳤거나 다른 원숭이와 교미를 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책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와 죄책감에 사로잡힌 수많은 인생들의 증언들로 가득차입니다(롬 1:18-32).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 결정하지만, 오직 사람만이 이성을 따라 결정을 합니다.

타락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게 됩니다. 사단의 추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 성품을 받았으니, 이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한다면, 주께서는 문자적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골 1:27).

혼은 감정과 열정의 좌소입니다. 영(spirit)이란 용어는 인지와 사유의 능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이들 두 본성 곧 육체와 영혼은 전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입니다(이 부분은 “구원” 항에서 더 상세히 언급하겠습니다).

III. 인간의 자유 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우주에는 다른 존재들도 있습니다. 천사들과 영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육신과 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자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타락하였습니다(사 14:12-15).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보다 그의 뜻을 기계적으로 수행할 로버트들을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유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지만, 그 증거는 역사상에 풍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판단하십니다.

IV. 인간의 죄

하나님이 자유로운 존재를 만드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행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택할 것까지도 다 아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사단으로 알려진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기 뜻을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지상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천상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즉시로 그는 하늘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많은 다른 천사들도 사단에게 가담하였고, 사단과 더불어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훼방하였습니다. 자유 의지를 가진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사단은 즉각적으로 순종의 길로부터 그를 아담을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를 하였지만, 사단은 그를 죄악으로 인도함으로 일시적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주의 도덕적 통치자로서 당신 앞에서 그의 명령을 일부러 불순종하는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에 하늘에서 곧 바로 쫓겨난 이유입니다. 똑같은 처사가 타락한 아담에게도 내려졌고, 그래서 아담 역시도 육신적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창 3:23-24).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고, 아담의 타락한 성품이 인류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전가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죄적

성품은 안팎의 유혹에 반응하며 행복하게 되는데, 죄는 기록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V. 인간의 미래

성경이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왔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치스런 타락과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는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신실하게 말해줍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 14:12)고 했습니다. 인간의 사망은 모두에게 공통적이어서 모든 사람이 다 불가피한 인생의 종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더 첨가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제각기 행한 바대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삶은 기본적으로 내세를 위한 준비입니다. 인간은 결코 동물과 같이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의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6장

죄(Sin)

I. 무엇이 죄인가?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에 죄의 주제, 그 원인과 치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있는 수많은 분량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가 무슨 살인과 강도와 같은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 완전의 사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죄는 그 절대적 완전의 마크에서 부족함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부족함의 죄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또한 다음과 같은 방식들로도 언급됩니다.

- A.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함(롬 5:13)
- B. 하나님께 반역함(요일 3:4)
- C. 도덕적 불순함(시 32:5)
- D. 악한 행위와 악한 생각(마 5:28)

II. 죄의 기원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죄는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동등해 지려는 욕심을 가진 것입니다(사 14:12-14). 이러한 자만의 죄로 인해서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나 그 후로 성경 어디에서든지 마귀 혹은 사단으로 지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땅 아래에서 나타난 죄의 첫 번째 경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말라고

하셨습니다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불순종하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 죄인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III. 죄의 결과

A.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 말자 그들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인식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했습니다. (창 3:7-8).

B.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아담은 그가 죄를 짓자 말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 사망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된 것을 말합니다. 그는 또한 불멸의 몸에서 육적 사망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즉시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필시 죽게 될 몸이라는 말입니다(롬 5:12).

C. 아담의 죄적 성품은 온 인류 전체에게 전가 되었습니다. 죄의 부모 아래 태어난 모든 죄의 자녀들은 태생으로나 선택으로나 그 행위로 모두 죄인입니다. 아담의 장자인 가인 역시 살인자가 되었으니, 죄는 그 값을 인류로부터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내어났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됨이요, 육체적으로도 반드시 죽을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12-18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D. 인간의 죄는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 왔습니다. 아담의 장자인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시와 영경귀는 저주의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들이 창세기 3:14-19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인간의 부패가 단지 인간의 자신의 실패와 실수라는 것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심리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인류의 지식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은 모든 면에서 더욱 더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들을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묘지와 죄수들과 병원과 장례식의 행렬을 보는 한 인간 죄의 증거를 또 다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회구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사망이 있는 것으로만 보아도 죄의 결과와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을까요? 요한복음 8:44을 읽으십시오. 그것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지옥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계 20:10).

IV. 죄의 형벌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롬 6:23)는 말씀은 사망이 죄의 형벌임을 밝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즉 사람은 그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온전하게 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형벌은 반드시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형벌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깨끗케 하실 길을 주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한,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며 필시 육체적으로도 죽음에 직면하게 될 운명입니다. 만일 그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그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타는 불못

가운데서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14에 말한 둘째 사망입니다.

V. 죄의 치료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죄로 인해 영원토록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치료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 절대 필요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아담의 죄적 성품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죄 없으신 사람입니다. 그런 무죄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기꺼이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요구를 만족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형벌 요건을 만족시켰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인 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고후 5:21). (이것은 다음 ‘구원’의 항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죄의 형벌과 그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으며, 그것으로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쾌락을 좇아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을 버리고,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24)

7장

구원(Salvation)

구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은 성경에서 매우 명백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세상을 두 가지 종족(family)으로 보십니다. 첫째는 마귀의 자녀들로 구성된 종족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 8:44)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종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종족에 속하든지 아니면 저 종족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장 오늘 죽는다고 하면, 당신이 속해있는 종족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느 종족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오직 이것만이 당신이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가 세상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사단을 멸하시게 하기 위함이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중생(born again)”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영적 탄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족으로 옮겨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의미하는 모든 것입니다.

구원과 중생에 대한 11가지 잘못된 개념

1. 자연적인 출신 성분이나 족보, 즉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증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2. 자기 확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나지 않은 것과 같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중생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3. 인간의 중보에 의해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즉,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설교자, 주교, 혹은 다른 종류의 영적 리더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중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조직된 종교의 의식, 제의, 기념식, 희생, 고행, 고백 혹은 회개기도 등도 중생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4. 중생은 육체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의 오해를 바로잡으시고, 그것은 영적인 변화임을 말씀하셨습니다(요 3:6).

5. 사회적이고 지역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중생한 사람은 갑자기 하늘에로의 경역적 변화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지속하며 그의 구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고전 7:20-24; 골 3:22-24).

6. 지성적인 이해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생 받지 않은 사람도 종교 교육을 받아, 사역에도 안수를 받고, 설교자까지도 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그 필연성을 알지 모르지만, 실제 체험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벧후 2:1, 20-21).

7. 진화론적 과정도 아닙니다. 중생은 어떤 종류의 영적 생명이 점차적으로 내적인 진화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엡 2:1-2).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중생은 단번에 부여되는 생명입니다. 중생이 없는 곳에 생명(영적)은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8. 개혁이나 혹은 자기 개선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중생은 무슨 사람의 태도나 버릇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엡 2:8-9). 그것은 새 생명을 이식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요 10:2)라고 한 것입니다.

9. 물 세례도 아닙니다. 대양에 있는 모든 물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구원하거나 깨끗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할지라도, 물이 구원을 가져다준다고 하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룩하신 일에 대한 공적인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벧전 3:21b). 우리는 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0. 공개적 인준(견진 성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식에서 대개 12-13세의 어린이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기름으로 머리에 붓기도 하는데, 이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 성령을 받지 않고, 당신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습니다.

11. 중생은 종교적 신념이나 교회의 구성원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종교의 신념에 신실하여, 세례를 받고, 인준을 받으며, 교회에 입교하여,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주일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교회의 직원이 되고, 또 설교자나 사제가 되고, 치료의 기적이나 예언의 능을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중생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행 8:22-23). 중생의 필요성은 주님의 공생애 시대에 가장 경건하고, 신실하며 도덕적인 사람 곧 니고데모에게 계시되어졌습니다(요 3:1-16).

이와 같이 중생은 영적인 변형이며(요 3:8),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요 1:13).

구원에 대한 7가지 바른 개념

I. 구원의 정의

구원이란 말은 단순히 해방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에 빠져 죽어가는 데서, 화재 사건의 빌딩에서, 가라앉는 여객선에서 ‘구원(조)’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세 가지 사항이 고려가 됩니다: (1) 구원의 대상이 죽음의 위험에 빠져있는 것, (2) 어떤 사람이 그 위험을 목격하고 가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 (3) 구조대가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완성하여 곤경을

당한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고, 그래서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구원하다”, “구원했다”, “구원자”,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 모두 다 정확히 영적인 의미로 같은 뜻을 갖습니다.

II. 구원의 필요성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필요성은 사람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합니다:

A. 사람의 죄(롬 3:23)

우리는 이미 앞에 장에서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논의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제각기 죄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는 바, 그 성품이 출생으로부터 그를 영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죄적 성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적 생각, 언어, 행동,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수된 행위로서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성경을 읽으십시오(롬 5:12, 18, 19; 6:16; 8:5-8; 창 6:5; 엡 2:1-3; 고후 4:3-4; 사 53:6; 램 17:9; 막 7:20-23; 롬 1:21-32). 이런 성경 구절로부터 다음의 사실이 명백하게 추론됩니다:

- (1) 죄인은 죄 사함이 필요하다.
- (2) 잃어버린 자는 다시 찾아질 필요가 있다.
- (3) 사단의 자녀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 (4) 죄책을 지닌 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죄 용서가 필요하다.
- (5)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 생명이 필요하다.
- (6)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하다.
- (7) 사단의 노예가 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사단과 죄로부터 해방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은 그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한 자이다.

B.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반드시 죄악을 처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죄책을 깨끗케 하실 분”(출 34:6-7)이십니다. 그는 죄악에 대한 그의 혐오와 죄악 가운데 죽을 모든 사람에게 판결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존전으로부터의 영원한 추방입니다. 요 8:21-24; 막 9:43-48; 눅 16:22-31; 유 11-13; 계 20:11-15을 읽으십시오. 명백한 결론을 말할 것 같으면,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죄인은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애통은 “무엇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해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0-31)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 스스로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III. 구원의 시여

복음은 좋은 소식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인격과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구원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는 소식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 분명하게 교훈됩니다.

A.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주로 오신 사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고 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등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주시게 하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요 3:16-17; 막 10:45; 마 9:12-13; 요 10:11; 15-18).

B.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구원이 시여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만족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우리의 죄책과 죄를 책임지시고, 그 몸이 우리 죄를 담당하사,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신 희생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내려질 때,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다 완전히 만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희생을 완전히 받으신 것을 가리킵니다(고전 15:1-4; 고후 5:21; 뱀전 2:24; 사 53:5; 롬 5:6-9; 행 4:10-12; 5:31; 17:31).

IV. 구원의 조건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희생으로 성취하신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죄인들이 그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A. 그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며, 그것은 죄, 자신, 구주와 구원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불러 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행동의 변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눅 13:3; 행 17:31; 20:21). 죄인들의 신념은 구원에 대한 진실된 소망에 자리를 내줍니다; 그의 자만심이 겸손으로, 그의 자기 만족이 솔직한 무능과 절망과 지옥에 떨어진 조건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B. 그는 복음을 믿거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요일 5:9-10).

상실되고 죄책을 지닌 죄인으로서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를 대신하여 죽음심으로 그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롬 4:5).

C.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신의 인격적 구주로서 분명한 의지의 표명을 통해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자신의 생애에 최고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요 1:12; 롬 10:9-10; 요 3:16; 5:24; 6:47; 엡 1:13).

이것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가 죄책을 가진 자이며 잃어버린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사오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후로는 주님이 내 생애에 주인이시오 통치자가 되시길 원합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행 16:31). 당신이 이같은 고백을

한번도 한 일이 없다면, 이제 신앙의 표시로서 해보시고 그가 당신을 구원하시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V. 구원의 확증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저할 필요 없이 즉시 주님의 말씀을 빌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선언하시기를,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죄 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행 13:38; 요일 2:12; 엡 2:8; 고전 6:11; 요일 5:13; 롬 5:1; 8:1; 요 10:27-30).

이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확증도 또한 있습니다: 새롭게 얻은 내적인 평안, 성경을 알고자 하는 선한 욕망, 기도하고 싶고 죄로 가득찬 삶에서 벗어나고픈 욕망 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노라.”(고후 5:17)

VI. 구원의 범위

구원은 삼중적 국면 곧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있습니다.

A. 과거-죄의 형벌과 그 결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의 모든 형벌을 온전히 담당하셨으므로, 믿는 자들이 받은 그 죄의 결과로부터 건지심을 받았습니다(요 5:24; 롬 8:1).

B. 현재-죄의 세력과 조정으로부터의 구원

성령의 내주하심과 거룩한 성품의 이식으로 인해, 믿는 자는 그 삶 가운데 죄의 왕국에서 해방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고전 6:19; 베후 1:3-4; 롬 6:1-4). 이것은 믿는 자가 죄를 지을 수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 죄의 성품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향해 의지를 발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적용함으로 인해, 죄는 믿는 자의 삶에서 지배적인 요소가 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승리는 다음과 같은 은혜의 수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 (1) 하나님 말씀의 독경과 연구와 순종(딤후 2:15)
- (2)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함(히 4:14-16)
- (3)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의롭고 유익한 삶을 삶(롬 6:13; 12:1-2)
- (4) 깨달아진 죄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음(요일 1:8-9; 딤후 2:11-15)

C. 미래-죄의 실재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성취될 구원으로서, 주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산 자의 몸을 변화시키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썩어짐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완전 부활체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될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살전 4:13-18).

VII. 구원의 결과

구원의 결과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엡 1:3-4). 그 가운데 여기에서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A. 하나님과 화평케 됨(롬 5:1). 더 이상 원수된 관계가 아님.
- B.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됨(엡 1:6)
- C.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새 가족 됨의 즐거움(롬 5:10-11; 8:14-17; 갈 3:26-4:7)
- D. 하나님을 목격하는 삶(고후 5:14-15; 갈 2:20; 뱀전 4:2-5)
- E. 선행과 예수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 봉사함(엡 2:10; 마 5:16; 막 16:15-16)
- F. 하나님께 예배, 찬양, 기도를 드림(요 4:23-24; 히 10:19-22; 히 13:15; 4:14-16)
- G.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집을 소유함(요 14:1-3; 계 22:1-5). 당신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당신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8장

구원에 대한 성경적 이해(Biblical Explanations & Illustration of Salvation)

그리스도는 구원의 발생하는 것을 3중성으로 규정하셨습니다.

- A. 먼저 “중생(New Birth)”에 의해 계시된 구원입니다(요 3:3-8).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3:5에서 “물”은 잘 알려진 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엡 5:26; 요15:3; 시119:9). 이들 문구에서 세례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충분히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뱀전 1:23-25; 약 1:18). 물을 가지고 우리들 눈 속에 있어서 그 선명한 시야를 가리는 먼지를 씻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을 때에 죄인들의 마음으로부터 잘못된 하나님 관념과 잘못된 구원 관념을 씻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사람이 잃어버린 의의 조건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롬 3:10-19).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비추어집니다(요 3:16).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집니다(롬 10:1-17).

- B.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으로 계시된 구원입니다(요 3:5).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각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 위에 머물게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성품이나 영적인 일들을 위한 재능을 전달하시며, 각각의 중생받은 성도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요 16:7-15; 엡 1:13; 4:30; 뱀후 1:3-4; 갈 5:22-26).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거나 또 들려질 때, 성령은 읽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에 모든 진리를 확신케 하시는 능력으로 적용하시며, 죄인에게 그의 상실, 죄책, 무능과 절망의 상황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그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성령님이 그 믿는 자를 그의 구속하신 소유로 인을 치시는 일도 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 사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실제적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C. 실제 보고 체험했던 자들의 증거에 의해 계시된 구원입니다.

신약 성경과 그 이후의 역사 전체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사실 보고 또 체험했습니다. 신앙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확신했습니다. 요한복음 3:14-16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죄인이 이 새 생명(중생)이 죄인에게 도래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수정같이 맑게 해줍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의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을 사용하시어 중생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7가지 단어로써 이 사건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신 중생의 비밀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예리하게 주의하여 살펴봅시다.

(1) 죄-민수기 21:5.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모든 인류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범죄하였습니다(롬 3:23).

(2) 심판-민수기 21:6.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백성에게 불러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 그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롬 1:18; 욥 36:18; 롬 6:23).

(3) 회개-민수기 21:7.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로서 태도의 변화를 낳고, 태도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눅 13:3; 행 17:31; 20:21; 막 1:15).

(4) 계시-민수기 21:8.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시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딤후 3:15-17; 롬 10:8-9).

(5) 시여-민수기 21:8-9. 구리뱀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 보이는 곳의 막대기에 달려 들려졌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14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모세가 구리 뱀을 든 것과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야 되시니 이는 곧 죄에 물려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셨으며,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그의 대속적 희생을 죽으심을 만족히 받으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사 53:5-6; 고전 15:1-4; 롬 5:7-8).

(6) 조건-민수기 21:8. “우리가 볼 때에.” 구리 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려 올리웠다는 그 자체 사실만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을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앙의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 구리 뱀을 쳐다보는 것이 정말 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까닭에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할지라도, 뱀이 정말 자기들을 구원할

것을 믿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며 자기들끼리 웃고 조롱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 그는 그 뱀을 쳐다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다는 사실(fact)을 아는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우리 모두 각자가 이 사실을 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고 했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하거나 또는 선행을 하라고 하지 않았듯이, 그렇게 이 시대의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를 믿음에 의해 자기 구주로 영접할 것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7) 결과-민수기 21:9. “그는 살았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이 구리 뱀을 보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새로 태어난 자 곧 중생받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믿고 그를 우리의 인격적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죄인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의해 내주하심을 받고, 거룩한 신적 성품에 참여자가 되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중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요 3:3,5).

9장

구원을 위한 회개(Repentance and Salvation)

A.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회개는 총체적인 내적인 마음의 행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들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단지 개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죄에서 돌이켰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 그것은 고행(penance)이 아니다.

고행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행하는 어떤 종류의 슬픔과 고통의 행위입니다. 각기 다른 종교의 많은 사람들이 소위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행합니다. 그들은 희생을 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사제들에게 돈을 바치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문을 따라 수천수만 번씩 거듭하여 암송하기도 하고, 고해실에 들어가 사제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 종교 의식을 거치기도 하는 등, 모두 다 자기 죄를 제거하려는 희망으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C. 그것은 후회(contrition)도 아니다.

회개는 우리 죄에 대하여 유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 유감을 갖지만, 이것이 그들의 죄를 지워버리지는 못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나 유감을 포함하지만,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고 단지 회개로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 7:10)

D. 그것은 마음의 변화이지, 생각의 변화가 아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를 일으킬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이도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1:28-29은 그 좋은 예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 자기 자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회개는 우리의 “옛 사람”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고, 대신에 하나님의 편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E.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확신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계속해서 우리 옛 행위를 고집하든지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그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불러야만 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네 가지 요소가 참된 회개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지성의 변화, 감성의 변화, 의지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의 늪을 헤매던 어떤 한 사람이 가장 합당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적절한 표현입니다. 갑자기 어떤 것이 그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를 멈추게 하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선택은 물론 그의 것입니다. 계속 자기 길을 가든지 아니면 돌아서든지 말입니다. 회개는 그가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해야 할 사람입니다.

10장

은혜로 받는 구원(Grace Provides Salvation)

은혜가 구원을 줍니다.

I. 들어가는 말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모든 일들은 실상 그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에 증거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서 160번 이상 발견됩니다. 이 중에서 128번은 신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베드로전서 5:10에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한 자”로 묘사되어 집니다. 요한복음 1:14에서 성령은 “은혜의 성령”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히브리 10:29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은혜와 밀접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II. 정의

구약에서 사용된 은혜라는 말은 “열등한 자에게 친절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호의, 선의, 인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의 정의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A. 은혜는 무가치한 대상에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죄책을 지니고, 부정하고 반역적인 죄인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B. 위를 향한 사랑이 경배고 동일한 수준의 사랑이 애정이라면, 아래를 향해 내려오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C. 우리가 오직 재앙과 심판 이외에 것을 받지 못할 형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과 자비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신을 구부리고 계시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D. 은혜는 지상의 최악의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상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속에서 발견됩니다.

III. 비교

은혜는 공로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인간이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면, 구원은 단지 그의 보상에 불과할 것입니다(롬 4:4-5; 롬 11:6).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빛도 없습니다. 구원은 단지 값없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또한 율법과 혼동되어서도 안됩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줍니다.

A. 율법은 해야 할 일을 명령하지만, 은혜는 이미 행하여진 일에 대해 말해 줍니다.

B. 율법은 “이것을 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말하기를 “살아라, 그러면 네가 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C. 율법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요 3:16)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요일 4:19).

D. 율법은 최상의 것을 정죄하나(롬 3:19), 은혜는 최악의 것도 구원합니다(롬 3:24; 4:5).

E. 결론적으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롬 3:20), 은혜는 구원을 나타냅니다(딤후 2:11-13).

IV. 은혜의 필요성

인간은 죄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반역하므로(롬 3:23; 골 1:21),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막대기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파괴한 채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롬 3:19; 갈 3:10; 약 2:10).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탄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편에서 무가치한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요 12:31-33; 3:18).

V. 은혜로 인한 구원

만약 인간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본질적으로 구원 받을 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를 통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 1:7)는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죄를 묵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데 그 초점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았다는 것, 그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죄 사함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속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므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되는 ‘오직 은혜’입니다(엡 2:8-9).

VI. 은혜를 통한 축복

은혜의 결과로 많은 놀라운 축복이 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구원-딤후 2:11-13. 이것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요 10:28)라고 했습니다.

B. 칭의-롬 5:1.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죄 없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C. 하나님 앞에 서는 것-롬 5:2. 참 신앙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4-16)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교회(Church)

교회는 두 가지 관점을 갖고 봐야 합니다. 먼저 교회가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정의 장소 안에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회합을 표현하는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집으로서, 모임을 위해 소용되는 특별한 건물이나 혹은 작은 방을 일컬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교회는 물리적인 구조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 자체입니다. 이들은 만국 중에 각기 흩어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중생 받은 자들이며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리를 배우고, 기도하고, 빵을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입니다(행 2:41-42).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중생 받은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 받았다면, 당신은 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비가견적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두 가지 의식에는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례입니다. 그것들은 속죄의 가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눅 22:19). 몇몇 종파들은 빵을 나누어 주고,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존재와 몸이 되어진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빵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잔은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다 우리를 위해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고전 11:24-29). 그리고 그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에 주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만찬은 주 예수를 기억하고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직 신자들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7-8절에 열거되어 있는 초기 지역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은사들과 예언들은 이제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와 예언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비록 어떤 이단자들이 계시와 예언을 받으라고 선언할 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 거짓입니다. 사실, 더 이상의 추가적이거나 반대적 계시들을 갖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계 22:18-19).

모든 지역 교회들마다 지방 자치이고, 자체적으로 체계화된 구조를 지니는데, 그것은 양들을 치고, 이끌고, 가르치는 집사들과 감독들과 장로(목사)를 포함합니다(딤후 3:1-15). 또한 교회에는 규율을 행사할 권위가 있고,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퇴교시킬 권위 등의 권징을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전 5:11-12).

13장

죽음(Death)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의 삶에 대한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제사 의식들이 산재한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이러 것들은 종종 의문시 됩니다: 낙원이라는 곳이 있는가? 고통 받는 장소가 있는가? 그곳은 어떠한가?

인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생각합시다, 즉, 세 부분-몸, 영,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살전 5:23) 첫 번째 부분은 물질적인 부분이고, 나머지 둘은 비물질적인 부분입니다. 영으로 인간은 신을 의식할 수 있고, 혼을 가지고 인간은 자아를 의식할 수 있으며, 몸으로 인간은 세계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나눌 수 있습니다(히 4:12).

죽음의 순간에 영과 혼은 몸을 떠납니다. 몸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믿는 자들의 경우에 몸은 자는 것으로 묘사되어 집니다(행 7:59, 60; 8:2).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은 죽은 것으로 말하여 집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구원받았다면, 그 영과 혼은 기쁨과 행복의 장소인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고후 5:8; 빌 1:21-23).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영과 혼은 슬픔과 심판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19-31에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분명한 의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십니다.

죽음은 영이 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성경에서의 말씀은 “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죽을 지도 모르지만, 영과 혼은 온전히 깨어있고, 결코 소멸치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항상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과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을 지닌 몸이 아니라, 몸을 지닌 영과 혼이라는 것을 이해합시다. 죽음은 단순히 “나의 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장

그리스도인의 부활(Resurrection for the Christian)

성경은 육체적 부활에 관해 많이 말합니다. 성경의 서로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지만, 그것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기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적 부활이 아니고 다시 삶으로 “의식 회복”일 뿐입니다. 나사로가 바로 그 예입니다(요 11:39-44).

육체적 부활의 첫 번째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첫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신자의 죽음을 죽었다기 보다는 “잠자는” 것으로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된 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참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은 그 자신의 육체적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 4:16)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과 혼이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늘로 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 이후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의 거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법정에서 요구되어지는 최대의 목격자수는 일곱입니다. 신약은 개인적으로 그를 보았다는 자들의 문서화된 증거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이 부활한 몸의 그를 보았습니다. 그를 본 다른 이들은 그가 살아있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가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경비가 지키는 돌무덤에서 삼일을 지낸 후, 그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그와 함께 이야기 했고, 그와 함께 먹고, 여러 번 교제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은 자들로부터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훨씬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27권의 신약과 교회는 살아난 그리스도로 인해 야기된 결과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그 부활을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즉각적으로 탄생하고 부흥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삼 천 명이 하루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면서 사방으로 퍼져 갔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그 원수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반대 증명으로 내놓았을 거고, 그것은 모든 초대 교회 성도들의 주장을 묵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삼일 만에 육체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또한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살수 있는 것입니다.

15장

지옥(The Hell)

성경은 지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주지한 바대로, 불신자의 영과 혼은 죽을 때에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지옥은 심판을 의식하는 곳입니다. 지옥에서의 영혼은 눈, 귀, 손가락, 혀, 기억을 지닌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곳에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23-25은 비유보다 실제 상황인데, 왜냐하면 개인적 사람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지옥은 가상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 미래의 상황을 알려 줍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의 최후 심판 때에 또 하나의 고통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 계곡”이라 불립니다. 백 보좌 대심판의 때에, 지옥에 있는 영들은 무덤으로부터 올려진 그들의 몸과 합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한 악인들에게 심판의 최후 선고를 내릴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의 거처인 불의 계곡으로 던져질 것입니다(계 20:11-15). 그러므로 현재의 지옥은 임시적으로 죄수가 그의 선고를 대기하는 감옥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예수 재림 때에 그들을 감옥으로부터 데려다가 최후 선고가 언도될 것입니다. 계시록 20:9-15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사단을 따른 모든 자들과 사단에 대한 백보좌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불의 계곡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인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을 감옥이나 형벌장과도 비슷합니다. 이 영원하 지옥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은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을 말씀하셨습니다(막 9:43-48). 그곳은 심판을 의식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문자 그대로 불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영원히 죄에 대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계시록에서 “영원 영원히”라는 구절은 잃은 자들의 비참함에 대해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어 집니다(계 14:11). 그렇다고 하면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허용을 하신다 말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둘 다 각 개인이 여기 지구에 사는 동안의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의 아들의 십자가 위에서의 공로를 값없이 제공했습니다(롬 5:6-8). 만약 인간이 그 구원자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지옥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죄인이 천국보다 지옥 가는 것을 선택한다 해도 그러도록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터무니가 없는 말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두는 자신들 각자의 선택에 의해 어느 곳이든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B.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요일 4:8). 그러나 그는 또한 거룩하십니다(벧전 1:16). 그는 죄를 벌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가 죄를 천국에 허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행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동산에서 선택했습니다. 인간은 일생동안 선택합니다. 죽을 때에 인간의 영원한 목적지는 결정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연옥이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두 개의 장소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고 말씀합니다(마 25:46).

C. 인간은 병자를 병원에, 범죄자를 감옥에, 시체를 묘지에 넣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교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인류와 마찬가지로, 이교도들은 잃어버린 죄인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물을 통해(롬 1:20, 시 19:1), 그리고 자신의 의식을 통해(롬 2:15),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계시의 빛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밝은 빛을 주실 것입니다(코넬리우스; 행 10장과 11장을 참조하십시오).

16장

천국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What Do We Know About Heaven)

성경은 명확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천국 곧 하늘나라(Heaven)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천국(Heaven)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다른 용법으로 쓰입니다. 첫째, 구름들이 위치해 있는 곳의 하늘(heaven)입니다(창 1:8). 그리고 별들이 위치해 있는 곳도 하늘(heaven)이라 불립니다(창 1:17).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이곳을 ‘세째 하늘’과 ‘낙원’이라고 하였습니다(고후12:2-4).

일반적으로 하늘(heaven)은 “위쪽”을 향하는 용도로 항상 쓰입니다. 사단은 이사야 14:13-14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의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 그는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영광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눅 24:38-39, 51; 벰전 3:22; 히 1:3).

천국에는 모든 믿는 자들의 위대한 주인이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고후 5:8).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며 기쁨 가운데 있게 됩니다(빌 1:23).

그럼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한 곳입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그곳을 준비했다면, 그곳은 분명히 정말 놀라운 곳일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천국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10-27 에서 요한은 하늘나라의 땅과 벽, 문들을 묘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계 21:4).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로 얼룩진 이 땅에서 그 고통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마침내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절대적인 기쁨이 될 것입니다.

17장

미래의 사건들(Future Events)

모든 성경 학도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읽을 수 있다면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성경이 알려주는 사건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달력에 기록된 분명히 일어날 사건은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살전 4:13-18). 교회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신호로 나팔이 울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 날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천천히 주의 깊게 말입니다. 오늘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놀라운

사건은 당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5:51-58).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에 대한 사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A.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릅니다(계 22:7).
- B. 진정으로 구원 받은 자들만 이 사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고전 15:23).
- C.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1).
- D.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요일 3:2; 롬 8:16-25).

II. 대 환란

마태복음 24:5-31과 계시록의 많은 곳에서 '대 환란'의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Rapture)이후 지구는 '대 환란'이라는 큰 아픔과 슬픔의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불신앙 가운데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큰 악의 통치자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속일 것입니다. 이 기간은 정말 '큰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며, 그 고통의 날이 줄어들 것 같지 않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III. 그리스도의 통치

대 환란의 처음 3년 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는 유대인(교회)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친구이며 보호자라는 믿음을 심어 줄 것입니다. 7년 대 환란의 중반에 그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거짓된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후에 역사상 유래가 없는 큰 핍박과 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며,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그 모든 막을 내릴 것입니다.

말라기 4:1-3에 보면 대 환란의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휴거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를 비롯하여 그의 대적을 모두 물리칠 것이며, 유대인(교회)들을 핍박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서 결박당할 것입니다(계 20:1-3).

IV. 천년 왕국

이사야 32:1; 35:1-7; 65:17-25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심판이 끝이 나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나라의 수도가 됩니다. 1000년 동안 그는 그 왕국을 다스립니다. 이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은 평화의 시대, 행복의 시대가 됩니다. 그 때의 자연은 지금의 자연과 완전히 틀리며 사자가 어린양과 함께 누울 것입니다. 사막은 장미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 오래 늙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이 기간은 크게 변형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죄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만약 죄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V. 백보좌 심판

계시록 20:11-15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의 1000년 동안의 다스림이 끝날 때, 백보좌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악하게 죽은 자들의 심판입니다. 구원 받은 자는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무덤들은 불신자들의 육체를 토해냅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자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 앞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계 20:11-15). 그들의 모든 행실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끝없는 고통의 영원한 형벌을 치루기 위해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VI. 영원한 세계

계시록 21:1-8을 읽으십시오. 미래의 마지막 그림은 영생입니다. 지구는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시간이란 개념도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주 예수께 거절당한 모든 사람들은 흑암과 어둠 속에서 영원히 고통 받게 됩니다. 우리들 각자 각자는 최후의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들 각자 각자는 누구나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어느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가?”

18장

시험에서의 승리(Triumph Over Temptation)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최악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면 큰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는 여전히 옛 본성 곧 아담의 죄 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은 항상 그를 죄 속으로 끌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있어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도록 합니다. 그 본성은 죄를 싫어하고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이 지속적으로 서로 대항하여 싸웁니다. 어느 본성이 이길까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답은 “당신이 양식을 주어 키우는 본성”이 이긴다는 것입니다(갈 5:16-17; 롬 8:5-8).

옛 본성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합니다.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옛 본성을 저주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옛 본성을 죽은 것처럼 여기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자라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키우지 마십시오! 그것에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롬 13:14)

새로운 본성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 줍니다. 그 본성이 더욱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악을 향해 “안돼!”라고 외치십시오! 동시에 선한 본성은 더욱 풍성히 자랄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지시사항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제안들입니다.

A.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것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암기하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시편 119:9, 1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죄 짓는 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정해 놓으십시오!(골 3:16)

B.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닥칠 때 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히 4:16). 그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고전 10:13) 만약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시험을 이기려 한다면 당신은 패하고 말 것입니다.

C. 함께 믿는 진실한 믿음의 친구와 교제를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불경건한 친구는 멀리하십시오!(잠 1:10-16; 히 10:24-25)

믿지 않는 사람과 일하고 함께 사는 것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또한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세상적인 쾌락과 환락에 동참해서는 안됩니다.(엡 5:10)

D. 즉시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십시오!(요일 1:9)

순간순간 당신이 죄악된 생각이나 언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는 않는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주말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잠 28:13)

E. 주 하나님을 위해 항상 열심을 내야 합니다.

게으른 손은 악인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롬 6:19) 우린 할일이 많습니다. 당신은 주인 중에 최고의 주인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F. 자신의 몸을 단련시키십시오!

육체의 운동은 유익합니다(딤후 4:8). 왜냐하면 믿는 자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육체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일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나 신령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스포츠에 전념하는 것은 불경건한 일입니다(고전 6:19-20).

G. 옛 본성을 소멸시키라!

우리가 무엇을 읽는지 무엇을 보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디에 귀 기울이는지 주의해야 합니다(골 3:5-9).

H. 새 본성을 키우라!

우린 그리스도로 채움 받아야 합니다. 그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은 죄에 대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골 3:10-14).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현상은 확실한 법칙입니다. 고린도후서 3:18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도 주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대로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우린 혼란스러워 집니다. 이기심으로 자신을 채우면 우린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자신을 채우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I. 마지막 권면!

시험에서의 승리는 단 한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권면을 주의하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오래 보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눈을 판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매우 경건한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늙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골 3:1-4).

19장

그리스도인의 행실(Christian Conduct)

그리스도인은 그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신자가 댄스파티에 가고, 극장에 가고, 카드놀이를 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락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세상의 즐거움과 오락에 참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요일2:15)

많은 젊은이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 난처해합니다. 성경에는 확실히 죄라고 규정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것들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본 장의 목적은 학생들이 그 행동을 결정하는 데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자신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A. 먼저, “오늘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분명히 금하고 있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죽음의 전염병을 피하듯이 멀리해야 합니다. 만약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해 지기 전까지 그 일을 행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살전 5:22).

B. 그 후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합니다. 고린도전서 10:31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당신은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이 이 일에 참여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말입니다.

C. 이 일이 세상에 속한 일인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요 17:16) 그는 전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거하셨지만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니었습니다(요일 2:15-17).

D.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습니다(벧전 2:21).

E.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당신은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어디도 가지 말라.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맞을 때 당신이 부끄러움 가운데 발견된다고 한다면”(요일 2:28)

F.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당신 속에 거한다고 생각할 때도, 당신은 지금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전 6:19; 엡 4:30)

G.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일입니까?

만약 왕의 자녀가 예의 없이 행동하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롬 2:24; 골 1:10).

H.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불신자들에게 당신의 행동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까? ‘정말 신자는 불신자와 다른 면이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 행동입니까?(고후 5:17) 또한 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행동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거나, 형제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였습니다(롬 14:13).

I.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 일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롬 14:23)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하였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롬 6:14-15)입니다. 이것은 우리 욕심에 따라 마음껏 행동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우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고후 5:14-15).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짓는 쾌락을 멀리한다면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반대로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엡 4:1). 그리스도인이 그 자신의 존귀한 신분을 잊고 세상 속에 빠져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올바르게 고치십니다. 목자가 방황하는 양을 자신의 목에 태우고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 신자를 회복시키시고 마십니다.

20장

세례와 장사 지냄(Buried in Baptism)

세례는 무엇인가? 또한 누가 세례를 받게 되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첫째, 어떻게 세례가 베풀어지는가?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을 위해 우리는 사도행전 8:26-39절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병거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보게 됩니다. 그는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 빌립을 그에게 보내 그에게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어떻게 갈보리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자신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말 그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로 갔습니다. 38절과 39절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럼 여기서 이 예식의 진정한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오래전 이 동방의 대로에서 벌어진 이 단순한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일을 오늘날에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A. 먼저,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행위입니다(마 28:19).

세례의 목적은 육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자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벧전 3:2). 그런즉 오직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행18:8).

B. 둘째로, 로마서 6:3-5은 세례는 영적 진리의 상징임을 가르칩니다.

(1) 물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2)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그는 심판의 물 속 아래로 내려갔으며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시 42:7).

(3)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대신 죽으신 이후로, 신자가 그와 함께 장사됨은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가 장사지낸바 되었을 때, 나도 장사지낸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사셨을 때, 나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4)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 된 본성으로부터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죄안에 있는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를 보십니다(갈2:20).

(5)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을 때, 그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지낸바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공식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골 2:12; 3:1-2).

C.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단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육체와 옛 본성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례는 외형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명 마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면, 신자가 세례를 받을 경우 그는 자주 핍박과 목숨까지 잃는 위험에 처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움 없이 목숨 상실의 위험을 넘어 순교자의 반열에 들기를 거절하지 않고 세례를 용감히 받았습니다(고전 15:29).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교도들의 땅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처절한 핍박의 신호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신자들의 입술의 신앙 고백은 엄청난 핍박의 감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 된 세력들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세례를 받은 우리 각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체험했던 똑같은 경험을 즐기게 됩니다. 그는 “혼연히(기쁨 가운데) 그의 길을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행8:39).

21장

교회를 선택함(Choosing a Church)

그리스도인이 어느 교회에 참여할 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번 주제를 소개함에 있어, 성도는 그가 회심한 즉시 참된 교회에 출석해야 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종과 문화와 그 얼굴 색깔을 초월해서 모든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멤버는 전 세계에 걸쳐 발견되지만, 지상 교회 전체가 한 장소에 회합을 가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서로 함께 지역교회에 모여 말씀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지역교회들은 온 세계에 퍼져있는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모임은 한주일의 첫날(주일)에 이루어집니다. 주일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아닙니다. 초대 교회사에 따르면 성도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롬 16:5; 빌레몬서 2장). 사도행전 2:42절에 보면“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떤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의 구성원으로 모이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25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며 모임을 폐하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약성경은 많은 곳을 할애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신자들이 가지는 특권과 책임과 의무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고전 12:).

그러나 여전히 새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리스트는 새 신자나 젊은이들이 옳은 길을 찾기 위해 돕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모든 의문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구하는 정직한 기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사 8:20).

모조품(사이비)은 가능한 한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당신은 모조품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할 때,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교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 당신이 확신하는 그룹 안에 거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며 영원하다는 것과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최후의 권위를 가진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말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적으로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딤후 3:16-17).

B.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실한지 확인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단지 위대한 리더였으며 위대한 선생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성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골2:9)

C.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삶을 살았고 자원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고전 15:1-4).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갈 1:6-9). 그의 고귀한 보혈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지 주의하십시오. 보혈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또한 위의 주요한 세 가지 테스트에 더해져서 그 지역 교회가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교회)에 대한 몇 가지 진리에 말로나 행실로나 모순이 없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

A.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골 1:18-19; 엡 1:22-23).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라 볼 것이며 오직 그의 명령과 인도를 따를 것입니다.

B.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고전 12:12-13).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참된 자녀는 교회의 교제 안에서 환영받습니다(그러나 이 법칙에 두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건전한 교리에 빠진 사람이며(요이 1:10), 하나는 죄안에 사는 자들입니다(고전5:13).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교회의 교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불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입니다(벧전 2:5-9). 신약에 보면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로 휘장은 찢어졌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막 15:27-38).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계 1:5-6).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모두 전도자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에 바빴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를 특징짓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D. 성령의 권위는 우리에게 깨우쳐져야 합니다. 경배와 예배, 사역과 제자훈련 속에서 성령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인도하심과 권위는 사람들이 만든 형식이나 조직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고후 3:17; 엡4:3). 요약하자면 새 신자는 성경을 유일한 삶의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신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잘 이루어가며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행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22장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Wanting God's Will)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긴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을 낭비할 것이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잘 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기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요 7:17).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정상적으로 체험해야 할 특권입니다(롬 12:2).

우리가 일시적인 문제에 대해 구하든지, 인생에 걸친 문제에 대해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섯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탁(YIELD); 고백(CONFESS); 기도(PRAY); 연구(STUDY); 기다림(WAIT).

A. 의탁(YIELD). 의탁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과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의탁은 하나님의 방법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을 의탁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마샤에 대한 성경을 보면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라고 하였습니다(대하 17:16)

B. 고백(CONFESS).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18)라는 시편기자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해야합니다(시 139:23-24). 또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의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행 1:8).

C. 기도(PRAY).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인도를 구하며 규칙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최대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골 1:9; 4:12).

D. 연구(STUDY).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말씀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십시오(딤후 2:15).

E. 기다림(WAIT).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시 62:6).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당신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조금씩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28:16에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1) 성경을 통한 인도하심: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금하시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야 될 지 말아야 될지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고린도후서 6:14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지시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에는 전혀 발견하지 못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시기적절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시 119:105).

(2) 그리스도인을 통해 인도하심: 때때로는 성숙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상담은 새 신자를 심각한 함정에서 구하기도 합니다(히 13:7-17).

(3) 환경을 통한 인도하심: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편지나 이메일, 라디오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길을 지시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얻기도 합니다.

(4)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의 신념이나 욕구, 기질 등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은 불순종과 같은 것임이 분명합니다(행 11:12; 16:6-7).

(5) 덧붙이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그 빛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행 26:19). 하나님의 지속되는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참된 행복의 근원이며 끝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장

기도와 실천(Practice of Prayer)

성경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어떤 진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신자가 성경이 기도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 지에 대해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아웃라인은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해줄 것입니다:

A. 왜 기도하는 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딤후전 2:8).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신 예수님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사람인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살전 5:17-18; 엡6:18)

B.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과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나 도움과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전쟁을 치를 때, 자주 하나님께 즉각적인 단문 기도(sentence prayers)를 드렸습니다. 분명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개를 숙이고 일용할 양식 앞에서 집에 있던지 식당에 있던지 기도해야 합니다.

C.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단 6:10).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눅 22:41). 반면에 느헤미야는 그가 왕 앞에 서있을 때에 서서 기도했습니다(느 2:4).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뿐만 아니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도 매일 매일의 활동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D.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

빌립보서 4:6, 디모데전서2:1-3, 마태복음 9:38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하는지 알려줍니다. 기도제목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제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1)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들, (2) 병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3) 선교사나 전도자나 교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 등을 적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응답은 구체적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기도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알 길을 잃고 맙니다.

E. 기도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요청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요 15:7).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요일 3:22). (1)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요일 5:14).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2)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요 14:13; 16:23).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기도하며

구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약 4:3)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의로운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F. 기도의 용어

우리는 공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때 그분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당신"이라는 말보다는 "주님은, 주님이.." 와 "주님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G. 기도할 때 주의할 점.

- (1)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마 6:5-6).
- (2) 당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참된 그리스도인도 도로에 들어간 후에 다시 인도로 자신을 되돌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인도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 (3) 당신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영혼은 피해를 지게 됩니다(시 106:15).
- (4) 무의미한 단어를 반복해가며 기도하지 마십시오(마 6:7; 전5:2).

H. 다른 제안 사항들

- (1) 당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다면, 소리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2) 기도 응답이 즉각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그 응답을 놓쳐버릴 정도로 빨리 오지도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헛된 일이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늦게 오지도 않습니다.
- (3) 만약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것이 당신이 구했던 것과 같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고후 12:8-9).

24장

복음 전도와 영혼 얻기(Witnessing and Winning)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잠 11:30). 전도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비록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없지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복음전파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합니다(엡 6:11-18).

A.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전도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마 4:19)이 확실한 영혼을

얻는 황금률인 것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지속되는 복음전파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복음 전파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B. 매일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접촉하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자신을 인도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면,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익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C.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치 않게 이용한다면 재치있게 그것을 기회로 삼아 애정이 담긴 간증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주제는 자주 대화 중에 등장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 종일 기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정치나 날씨나 스포츠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D.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달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군사는 이와 같은 모든 막강한 무기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당신이 성경구절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힘으로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욱더 성경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만약 심지 않는다면 거둘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을 널리 그리고 멀리 멀리 뿌려야 합니다(마 13:4-8).

E. 계속 접촉하십시오. 한번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 번 복음을 접하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성경공부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F.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진실되지 못한 신앙고백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에 손상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신실하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씨가 성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요 4:35-38).

G. 하나님에 대해 당신이 이야기하기 힘들다면, 하나님께 그 힘든 점을 털어놓으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당신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마 10:32).

H.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지하고 다니십시오. 단지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건네 주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차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식당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1)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서 체험하는 기쁨이라는 선물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선물입니다(눅15:10). (2) 천국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나를 여기에 초대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며 인사한다면 얼마나 천국에서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3)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모든 천국 백성들 앞에서 당신을 칭찬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마10:32)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방황하는 무리들을 주님이 보셨을 때, 눈물이 흘러 눈이 흐려졌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기 원합니다. 방황하는 양 떼들을 동정어린 눈빛으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마9:36).

25장

성경 공부(Searching the Scriptures)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대해 어떤 점을 알아야 합니까? 성경공부는 성령에 온전히 의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요 14:26; 16:13). 성경을 배우는 빠르고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은 성경을 쓴 저자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시기 바랍니다(요 14:26).

A.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을 시간을 매일의 스케줄에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신약을 쭉 읽어가는 것은 좋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창세기부터 성경전체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읽어봤다고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B. 만약 당신이 친숙하지 못한 단어를 찾았다면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이 있다면 먼저 주의 깊게 그 본문을 살피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이해가 안가는 점을 노트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주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C. 성경을 성경과 대조하기

한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전체 성경 안에서 그 주제에 대한 일관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또 다른 진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D. 당신이 각 장마다 다음 질문에 답하며 아웃라인을 만들어 간다면 당신은 유익한 성경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구약에서도 당신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나 그림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 (2) 이 장의 주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 (3)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 (4) 요절은 무엇입니까?
- (5) 내가 멀리해야 하는 죄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 (6) 내가 적용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본보기는 무엇입니까?
- (7) 이해가 안가는 구절들은 무엇입니까?

E. 당신은 당신이 읽은 말씀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을 통해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공부를 통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말 3:16).

F. 매주 두 세개의 성경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친숙한 구절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요 1:12; 요 3:16; 요 3:36; 요 5:24; 롬 10:9 등). 당신의 마음과 심장에 그 구절들이 뿌리박힐 수 있도록 계속 되새기십시오. 작은 카드에 그 구절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더 쉽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G. 성경공부의 중요한 목표는 당신이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고치시며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렘15:16). 성경을 공부할 때 당신은 영원한 책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모든 것은 영생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26장

가치있는 삶(The Life that Counts)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가치 있게 살수 있습니까? 비록 신자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영원한 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든 계획은 죽음으로서 끝이 난다”라는 말은 옳은 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낭비하는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A.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라는 말은 마태복음 10:16-42와 누가복음 14:25-3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안락과 세상적인 든든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적이 되며 조롱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 진지하게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롬 12:1).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의 삶으로 드리겠다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헌신의 행위는 정말 합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C. T. Studd가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그의 희생 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다."

C.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십시오. 마태복음 16:25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을 알고 싶다면 당신은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D. 당신을 과거로 인도하는 당신 뒤에 있는 다리를 붙살라 버리십시오. 시편 118:27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비취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밖에 뿔어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을 잡아당기는 과거의 끈질긴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온 맘을 다해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눅 9:23).

E. 결길로 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출발은 잘 합니다. 그러나 비전을 잃어버리고 옛 습성 속에서 잠을 잡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물질만능주의, 흥미로운 일들, 그리고 많은 도덕적인 유혹들이 당신을 불러들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결혼은 제자가 되려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과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당신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9:62).

F. 섬기기 위해 사십시오. 마태복음 20: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위대함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0:35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G.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다스린다면 매일매일의 삶은 영원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즐거운 오락이 아니라 열정적인 탐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어떤 값도 치루지 않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많은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당신의 품삯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품삯보다 당신의 일을 더욱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상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십시오.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아무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라는 말을 하실 때, 당시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문서는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Charlotte에 위치한 the Bible Broadcasting Network에 의해 특별히 작성되었습니다. www.bbnet.org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문서는 두가지 면에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첫째, 디모데후서 2:15절에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둘째, 디모데후서 2:3-5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라고 되어있습니다.